

【오카야마가 고조되었다. 내년에도 (센류- 일본 시조)】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이 제목은 총무과 여직원이 읊은 센류로 평범하면서도 오카야마 고조를 느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직원 중에서도 「오카야마의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의견도 들려와, 저 자신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여름에 「전국 고등학교 종합 체육 대회」를 시작으로 가을에는 대형 현대 아트전 「오카야마 예술 교류」제 2회 대회인 「오카야마 마라톤」, 그리고 3개의 대규모 컨벤션 (「전국 도시 문제 회의」 「한중일 3개국 지방 정부 교류회의」 「간호 보험 추진 전국 서밋」)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개최된 「오카야마 예술 교류」는 목표를 크게 웃도는 약 23만 4,000명이 입장하고 즐겼고, 많은 어린이에게 신선한 충격을 느끼게 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봄의 데스티네이션 캠페인(큰 캠페인의 하나)과 경제 단체가 주최하는 대규모 컨벤션, 축구 화지아노 오카야마의 약진 등으로 많은 사람들 오카야마를 방문해 시민의 참여가 확산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참고로 ,

- 금년도 상반기 오카야마 성 천수각 입장자수 전년 대비 23.8 % 증가
- 금년도 상반기 오카야마 고라쿠엔 입장자수 `전년 대비 17.3 % 증가
- 금년도 컨벤션 개최 건수 전년 대비 26.5 % 증가)

그러나 이런 기쁜 데이터가 있지만 아직 많은 과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 대기 아동 문제

받아줄 시설의 정비나 보육료의 재검토를 시행함으로, 새로운 보육 요구의 표면화도 예상되지만, 여성의 활약을 뒷받침하는 토대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 문제

도도부현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40위권대의 침체한 중학생의 학력이나 전국 평균의 약 2배의 발생률인 폭력 행위 등의 문제에 단단히 임해나가야 합니다.

- 콤팩트 도시의 실현

저출산 고령화가 한층 더 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중교통의 충실과 생활 교통 확보 의해 연결된 교통 네트워크와 도보로 즐길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착실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지역 산업의 진흥과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 여성이 빛나는 마을 만들기 건강 복지의 충실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 해 있으며,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는 내년에도 시민 여러분과 힘을 함께 노력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추운 겨울,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오카야마의 새로운 비약을 향해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연말 인사를 드립니다.